
발표 1

음식, 기원 그리고 이동 경로 강제이주 시대의 기억의 성별화

카타리아 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민족학과 교수)

음식, 기원 그리고 이동 경로 강제이주 시대의 기억의 성별화

카타리야 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민족학과 교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담론은 기억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계도 큰 관심을 두는 주제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컵케이크와 마카로니 그리고 치즈에 대한 새로운 맛의 발견은 이들 음식의 미식적 관점의 매력이 아니라 과거의 것에 대한 편안함과 역사에 대한 사회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음식이 불러일으키고 상상을 통해 되살려내는 과거의 향수와 추억에 관한 것이다. 추억과 기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대부분 기억의 취약성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 취약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강조되고 있다. 이란계 미국인 작가 로야 하카키안(Roya Hakakian)은 최근의 자신의 회고록에 “사랑하는 것들과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민이 되는 순간, 기억만이 자신의 가질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적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있다. 약 2초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과 생활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탈, 이주, 불화는 연결성과 상호의존성만큼이나 우리 삶의 경험의 한 단면이 되고 있다. 망명 상태는 불행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대적 특성 중 하나이다.

심지어 생생한 기억 속에서조차 아시아는 격동의 역사를 공유해 왔다. 식민지화, 내전, 전쟁 그리고 여타의 재난은 대규모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했다. 200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그리고 라오스인이 전쟁과 혁명의 여파로 고향을 등지고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그 이상의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끊임없이 살던 곳을 떠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대량학살은 이제 아시아와 실향민 사이에서 분열된 캄보디아의 문화적 기억에 깊은 상처와 파괴적인 영향을 남겼다. 전쟁과 대량학살의 외상이 없어도 세계화,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는 그들의 유산에 대한 전통 지식을 계속해서 제거했으며 특정 기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잊어버리게 했다.

몸이 떠나가면 기억은 어디서 살게 될까? 음식은 항상 고향과 유산을 의미한다. 이주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이 두 가지는 종종 그들의 상상 속에만 있기도 하지만 간혹 실제로 같이 다니기도 한다. 샤롱 끈 속에 넣어온, 특정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특정 품종의 고추 씨앗, 실향민들 사이를 떠도는 여러 냄새와 맛 속에 있는 고향의 기억, 본국의 식탁으로 그들을 이끄는 먼 지역에서 온 향신료 등이 그것이다.

음식은 그 충만함에서 '집'을 의미하며, 장소와 소속감뿐만 아니라 공간을 장소로, 그리고 장소를

집으로 바꾸는 사회성의 모든 요소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음식은 사회적 기억이 소중히 간직된 곳이며 이를 통해 기억은 전승된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순한 장소나 부속물이 아닌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간을 장소로, 장소를 고향으로 바꾸어 주는 모든 사회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런 기억이 교과서와 다른 이야기 속에 남아 있지 않은 곳에서 음식 중심의 관습과 의식은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이다. 따라서 문화의 발굴, 보존 그리고 전승의 중요한 유적지가 된다.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하는 전통과의 연관성을 알게 되는 것은 종종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이다.

2016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중등교육기관의 교과 자료 개발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통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가 이를 국정 교과과정의 일부로 채택하였다. 쌀과 향신료에 관한 부분이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린이 책 두권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쌀과 향신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음식을 문화 아카이브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영역, 즉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경험과 국제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권력과 과정을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바라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쌀과 향신료를 동남아시아의 공통된 음식문화 전통이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동남아시아 민족과 세계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이주, 과학과 의학, 정신성, 사회성 그리고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는 렌즈로 여긴다. 보통 카레와 같이 잘 알려진 음식은 각 나라의 음식 문화 전통의 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의적인 적응력과 지역적 이동과 접촉의 역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전쟁 이전 캄보디아 북서부의 독특한 음식이었던 미 콜라(mi kola)는 버마에서 캄보디아 보석광산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산족 공동체의 존재를 보여주는 문화적 표시이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빵은 프랑스 식민주의의 유산인 반면 이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먹거리 메뉴에서 일반적인 음식이 된 이들 나라의 상징인 반미는 1975년 이후 군사 독재와 제국주의의 장기 지속과 그 복잡성 속에서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인기 있는 달걀을 이용한 디저트의 유래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기억이 따라가는 우회적인 군사화 경로-이 경우 포르투갈, 동남아시아 그리고 브라질-를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눈에 더 잘 보이는 전쟁과 정복의 유산에 의해 매장되고 희미해진 인류의 연대를 더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

쌀과 향신료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지역적, 세계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내부에서 혹은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문화적 흐름이 아닌, 아시아에서 세계 다른 지역으로의 치유의 과학과 철학과 관련된 지식의 흐름을 강조함으로써 다방향적 문화적 흐름을 중시했다. 동남아시아 음식문화는 세계 무역과 요리 수출의 역사 외에도, 특히 치유의 과학과 철학과 관련하여 세대를 거치며 습득되고 전승된 지혜와 과학 지식을 보여준다. 그중 일부는 서양으로 흘러 들어가 건강과 웰빙의 개념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과 영양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식과 전통의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아시아로부터 온 생각과 영향의 세계적 흐름, 상호 연결성,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구전 역사(Her/story)와 성별화된 기억

쌀과 향신료 프로젝트는 일상적 관습을 문화유산의 아카이브로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더욱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억을 단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층, 성별, 세대 등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원성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여전히 연구, 저술 또는 다른 형태의 기록 속에서 기억은 일률적이다. 모든 기억은 같다는 가정 때문에 여성들의 이야기, 경험 그리고 관점은 거의 기록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이 중요한 의식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소중한 문화적 기억을 전달하는 등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기억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중요하다. 기념일이나 축제에서 음식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은 여성들이다. 사실상 동남아시아 삶을 형성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활동-가족을 위한 요리에서 사원 공양물 준비에 이르기까지-은 여성들이 수행한다. 같은 맥락에서 쌀과 향신료와 관련된 동남아시아의 농업 관행, 의식, 신화, 전설, 노동요 등은 모두 성별화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쌀과 향신료의 맥락에서도 성별화된 요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쌀과 향신료 프로젝트는 중요하고 성공적인 계획이었지만 나는 또한 젠더화된 기억과 일상의 이야기, 유물을 통해 그것을 포착해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음식에 대한 논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내 가족처럼 동남아시아의 가정에서 “음식 유산”은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여성의 재능이다.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공간에서 전승되는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다. 자라면서 나와 우리 가족 내의 여성들이 음식의 치유적 특성,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요리법, 무엇보다 캄보디아인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배운 많은 것은 항상 삶의 교훈과 엮여 있는 지시, 훈계, 이야기 그리고 문화적 기억이 수행되고 전달되는 부엌의 온기와 양육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엮는 것”을 허락받아야 하는 어른들 간의 농담을 통해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

일상적 무형유산의 저장소로 전통의 식습관이 젠더화된 기억을 폭넓게 생각하게 하는 중요하고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지만 조리법 외에 여성이 여성에게 전승하는 많은 전통과 관습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식, 의미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의 통과의례를 나타내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choal maloob)”의 관습 혹은 다양한 신앙, 금기 그리고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자가 부양과 관련된 관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여성 문신에는 어떤 젠더화된 기억이 내재되어 있는가? 어제 회의의 주제였던 옷칠과 관련하여, 우리는 캄보디아 전통 혼례의 일부인 옷칠을 하는 의식이나 치아 옷칠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아직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캄보디아에서 사라져가는 비단실에 사용하는 옷나무의 사용과 같은 젠더화된 노동은 또 어떠한가? 이러한 기억과 지식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미 소외되어 있는 젠더화된 공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기억은 문화적 기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기억은 역사, 교육, 정치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우리와 다음 세대들은 식민주의와 전쟁 하에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현대 학교에 다닌 최초의 동남아 여성들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아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여성 개척자들은 누구였는가?

기억은 절대적인 중요성 측면에서가 아니라, 인식된 중요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인식된 중요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면에서 불평등하다. 이러한 기억들 중 일부는 특정 공동체에서

보존되고 있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러 저러한 젠더화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진 공동체와 이미 소외되고 가족과 가정이라는 친숙한 범위로 축소된 기억이 분열과 이주로 인한 삶의 불안정, 많은 경우 세대와 언어의 상실로 인해 더욱 위협받고 있는 곳에서 특히 절박하다. 이런 지역사회에 있어 세대교체와 함께 그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와 같은 외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은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과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관들, 특히 교육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버클리의 공동체 건강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계획은 세계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법 모음집이었다. 이 모음집 내용의 대부분은 어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 역사를 만들어 내는 데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지속 가능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길을 닦아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 중심 프로젝트들이 모든 세대에게 여성의 지식, 기술, 경험, 공헌에 대한 찬미를 심어주고 긍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을 학교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일상적 경험 속에 뿌리내림으로써 배움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우리 대학과 같은 공립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그들의 의미 있는 지식생산에 규모가 더 큰 공동체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계와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박물관과 같은 특정 영역을 넘어서 보존 노력을 확장하고 그러한 노력을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문화보존을 특정 기관의 특권적 임무에서 더 폭넓은 협동작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비판적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수단, 기술 그리고 다른 민족과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의 연결성에 대해 배운다. 이러한 지식과 일련의 기술 그리고 통찰력은 그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자신이 사는 국가,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의 시민으로서 비판적인 참여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